창사 66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제8674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kjdaily.com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음력 3월 18일)

편의점 vs 중·소형 마트 '희비'…확 바뀐 광주 '동네 상권'

최근 4년 편의점 28.35% 급증 슈퍼마켓은 10.55% 감소

高인건비·금리에 1인 가구·온라인 시장까지 '복합' 영향

소비자 구매력↑ +편리함 선호 트렌드…동네마트 '시름'

최근 소비 추세가 급변하면서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마트'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이를 대체하는 편의점은 급증세여서 동네 상권의 구조조정이 해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25일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슈퍼마켓 사업자는 10.55% 감소했다. 이와 달리 편의점 사업자는 28.35% 증가했다.

2020년 1월 기준 슈퍼마켓 사업자 수는 853명, 2021년에는 842명이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화된 2022년에는 804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지난해 792명, 올해 1월 기준 763명으로 최근 4년간 지역 내 90개 슈퍼마켓이 사업을 접었다.

편의점 증가세는 해가 갈수록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 편의점 사업자 수는 1천51명, 2021년에는 1천101명이었고 2022년 1천200명, 지난해 1천295명, 올해 1월 기준 1천34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편의점 창업 속도가 슈퍼마켓 폐업 속도를 훨씬 웃돌면서 동일 지역 내 편의점 간 경쟁마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등 소비 추세가 변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마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임대료가 상승한 데다,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광주지역 1인 가구는 2020년 19만3천948가구, 2021년 21만2천385가구, 2022년 22만1천464가구로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35.5%에 이른다.

젊은 층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하게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편의점 점포 수는 물론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30평·50평대 매장도 넓은 편에 속했지만, 현재는 80평·120평대의 점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편하고 양질의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구매 심리가 자리잡으면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트의 경쟁력이 낮아졌다. 접근성·편리함이 가격 메리트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광산구 수완동에 거주하는 한다정(27·직장인·여)씨는 "근처에 규모가 큰 편의점이 있어 최근 1년간 마트에 가본 기억이 없다"며 "앱(APP)을 사용해 할인받을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만 파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편의점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도 마트 사업자가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7조3천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해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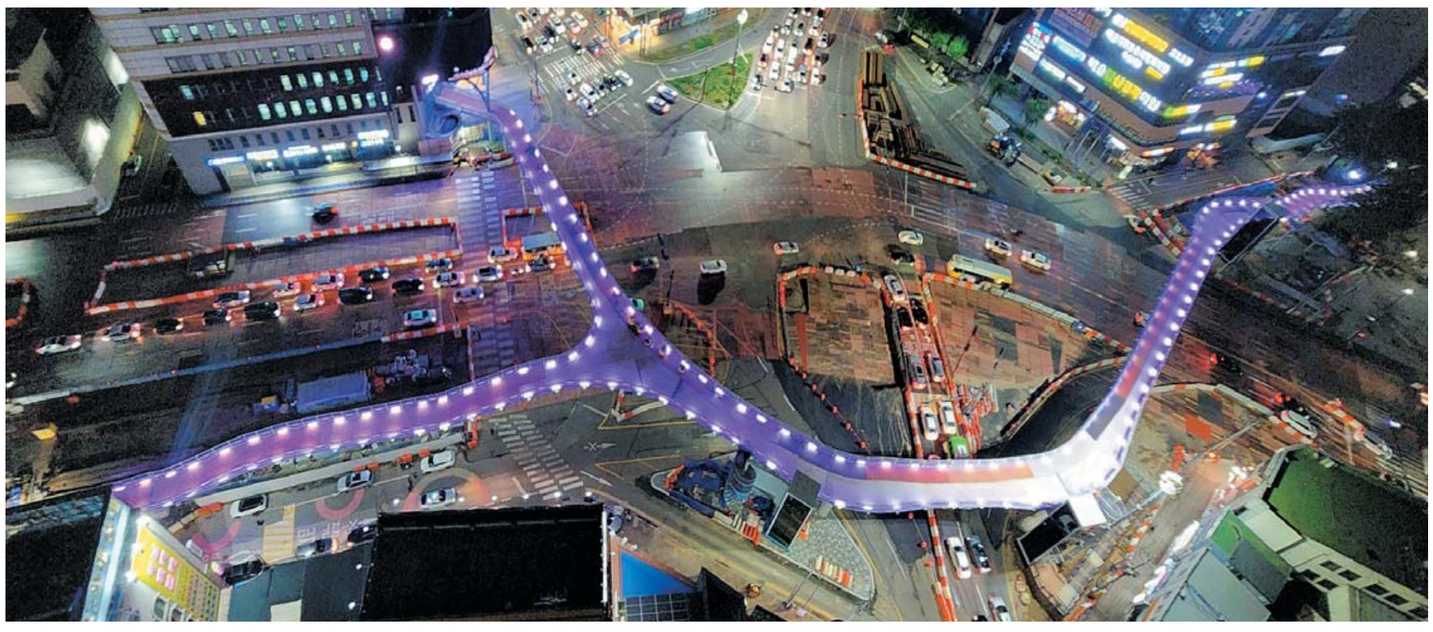
중·소형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편의점과 온라인 시장이 동네 상권을 잠식하고 있어 손써 볼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산구 선암동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김인동씨는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에 근처 편의점과 온라인 시장까지 경쟁 요소가 너무 많아 온종일 일한 인건비만 나와도 다행일 지경"이라며 "반품도, 배달도 훨씬 편리한 온라인 시장이나 젊은 층이 선호하는 상품들이 많은 편의점을 이길 방법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또 "마트를 운영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넘겨주고 싶다"며 "그만큼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이익은 적어 주변에도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마트의 영역이었던 오프라인 시장마저 편의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소비자 구매력이 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트렌드에 따라 동네 마트는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은솔 기자



모습 드러낸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야간조명 광주 남구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가 오는 29일 개통을 앞두고 25일 야간 조명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백운광장 앞에서 끊긴 진월동과 남광주역 방향의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연결하는 푸른길 브릿지의 길이는 본선 205m와 경사로 146m를 합해 총 351m에 달한다. /김애리 기자

Today
성공신화··청년창업가를만나다 12면
박계영의 몸에 좋은 제철음식 14면
KIA 정해영, 최연소 100S 신기록 16면

전남도 "군공항 관련 姜시장 '플랜B' 발언 유감"

"진정성·지원 방안 구체성 갖고 무안군민과 대화해야" 촉구

전남도가 지난 24일 군공항 이전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나온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광주시가 진정성을 갖고 무안군민들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25일 장현범 기획조정실장 명의의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관련 전남도 입장'을 통해 "무안군이 반대하면 이전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는 강 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는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면서도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나 '플랜B' 언급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언급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또 "지금은 광주시의 진정성과 이전지역 지원 방안의 구체성에 대해 무안군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슴을 터놓고 대화 나누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함께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전날 초당대학교에서 열린 소음 대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지난해 김영록 지사와 합의했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B'를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해결도 안되고 지지부진하게 갑론을박 시간만 보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광주와 전남,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통합공항을 결론을 내려서, 통합하기 싫다 그러면 저도 과감하게 안하겠다"고 '플랜B'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와 전남, 무안을 다 살릴 수 있는 통합공항을 진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길지 않은 시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무안이 결사적으로 죽어도 광주 민간·군공항을 안 받겠다면 제 계획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무안군수가 제 생각을 들어보고 끝내 동의할 수 없다면 저도 저의 갈 길을 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재정 기자

사진·영상으로 만나는 '남도 관광 매력'

'최수종의 여행사담' 30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방송

전남도는 25일 "전남 관광지의 아름다운 매력을 예능 영상으로 담은 지상파 방송 여행 프로그램 '최수종의 여행사담'이 오는 30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55분 방송된다"고 밝혔다.

최수종의 여행사담은 배우 최수종과 가수 겸 배우 정진운이 전남도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으며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도·장성군·해남군·진도군이 지원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가 제작했다. 〈사진〉

배우 최수종은 14년 넘게 (사)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남의 영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행 내내 전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며 따뜻한 시선으로 전남 곳곳을 사진으로 담았다.

최근 강진 품애(愛) 2호에 입주한 가수 겸 배우 정진운이 여행 메이트로 함께 나섰다. 개인 사진전을 개최할 만큼 사진에 대한 애정이 있는 배우다.

이들은 함께 전남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만의 전남 여행 앨범을 영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프로그램이 장성·해남·진도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 먹거리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며 전남 관광의 매력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종의 여행사담은 오는 30일 장성군 편을 시작으로 5월7일 해남군, 5월14일 진도군까지 매주 화요일 3부작으로 KBS2 TV를 통해 방송된다.

김성원 전남도 문화산업과장은 "2022년부터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매년 3개 지역별로 전남을 소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를 통해 전남의 곳곳을 널리 알리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